인천시 채무진단 및 개선방안

1999. 2

인천발전연구원

< 목 차 >

Ⅰ. 문제제기 ····· 1

Ⅱ. 인천시 채무 현황 ····· 2
1. 인천시 채무 현황 및 건전성 진단 ····· 2
(1) 인천시 채무규모 및 구조 현황 ····· 2
(2) 인천시 채무의 건전성 진단 ····· 16
2. 인천시 채무 상환계획 ····· 23
(1) 인천시 공기업특별회계부문의 채무상환계획 ····· 23
(2) 인천시 기타회계부문의 채무상환계획 ····· 37
(3) 인천시 일반회계부문의 채무상환계획 ····· 39
(4) 인천시 채무상환계획 총괄 ····· 39

Ⅲ. 인천시 채무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40
1. 인천시 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의 문제점 ····· 40
(1) 인천시 채무현황의 문제점 ····· 40
(2) 인천시 채무상환계획의 문제점 ····· 44
2. 인천시 채무관리 및 재정개선대책 ····· 45
(1) 인천시 채무규모의 적정화 방안 ····· 46
(2) 인천시 채무구조의 개선방안 ····· 52
(3) 인천시 채무상환계획의 개선방안 ····· 54

Ⅰ. 문제제기

□ 지방자치 이후 인천시는 대내적으로 주민의식의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수요의 증가와 대외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 도시철도 건설 등을 통한 21세기 동북아의 허브로의 성장계획에 따라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수요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인천시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그 확충에 한계가 있음.

□ 현 여건에서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의 종류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으며, 최근 공공서비스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수입의 도구로서 지방채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음.

- 일시차입금: 재원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채무
- 채무부담행위: 동일 회계연도 내에 계약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채무
- 지방채: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공채

□ 인천시가 현재와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면 합리적이나, 현재의 지불능력이나 장래의 잠재능력을 초월하여 채무를 지게되면 향후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인천시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채무의 현황 및 채무구조 그리고 상환계획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적시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의 바람직한 채무관리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인천시의 채무 현황과 상환계획을 살펴보고 채무의 건전성 정도를 서울 및 6개 광역시와 비교함.
- 다음으로 인천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상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채무관리 및 재정개선대책을 살펴볼 것임.

Ⅱ. 인천시 채무 현황

1. 인천시 채무 현황 및 건전성 진단

□ 1998년 정기국회에서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단체들의 채무총액은 총 24조원에 이르며 연간 이자로만 1조 5천4백억원이 지출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인천시의 채무현황을 채무규모 및 채무구조면에서 살펴보고 서울 및 6개 광역시와의 상대적 비교 및 채무의 건전성지표를 통해 인천시 채무의 건전정도를 분석할 것임.

(1) 인천시 채무규모 및 구조 현황

가. 인천시 채무규모 총괄

□ 1998년 12월말 현재 인천시 본청 및 구·군 등을 포함한 총채무규모는 1조 2,327.5억원으로 1997년말의 1조 626.9억원보다 1,700.6억원(16.0%)이 증가함.

□ 인천시 채무액의 자치단체별 구성비를 보면, 인천시 본청은 1조 2,134.1억원으로 채무총액의 98.4%를 점유하고 있고 구·군은 193.4억원으로 채무총액의 1.6%에 불과하여 인천시 채무의 대부분을 본청이 차지하고 있음.

□ 인천시 본청 채무총액중 인천시가 순지방비로 상환하는 규모는 1조 2,134.1억원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 융자한 1,285.0억원과 시영아파트 입주시 입주가 상환하게 되는 국민주택융자금 748.9억원을 제외한 1조 100.2억원임.

□ 시본청 채무액을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973.6억원으로 인천시 채무총액의 8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1,160.5억원으로 9.4%를 점유하고 있어 공기업특별회계가 채무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채무총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계	시본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군계	
					공기업	기타
1994	5,865.6 (100.0)	5,708.7 (97.3)	645.0 (11.0)	5,063.7 (86.3)	4,329.2 (73.8)	734.5 (12.5)	156.9 (2.7)
1995	6,782.1 (100.0)	6,537.4 (96.4)	413.3 (6.1)	6,124.1 (90.3)	5,368.4 (79.2)	755.7 (11.1)	244.7 (3.6)
1996	8,533.3 (100.0)	8,314.9 (97.4)	274.2 (3.2)	8,040.8 (94.2)	7,081.9 (83.0)	958.9 (11.2)	218.4 (2.6)
1997	10,626.9 (100.0)	10,452.1 (98.4)	303.0 (2.9)	10,149.1 (95.5)	9,241.1 (87.0)	908.1 (8.5)	174.8 (1.6)
1998	12,327.5 (100.0)	12,134.1 (98.4)	379.0 (3.1)	11,755.1 (95.3)	10,973.6 (89.0)	781.5 (6.3)	193.4 (1.6)

주: 1) 각년도말 현재
2) ( )은 인천시 채무총액대비 비중

□ 1998년 6월말 현재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인천시의 채무잔액은 총액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4위임.

-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다음으로 5위
- 기타 특별회계 기준으로는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울산에 이어 6위.
- 공기업특별회계 기준으로는 1위.
- 산하단체 기준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음으로 6위.

□ 인천시의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의 채무잔액이 높은 이유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인천시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산입하고 있는 채무를 산하단체 및 기타 특별회계 등에 편입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부산시의 경우 97년말 현재 2조 547억원에 달하는 지하철사업 채무를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으로 이전하여 시채무나 산하단체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를 고려할 경우 서울 다음으로 채무잔액이 많음.

< 서울 및 광역시별 채무총액 비교 >

(단위: 억원)

구 분	채무잔액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산하단체
서울	58,119	450	8,007	762	48,900
부산	20,921 (41,468)	4,344	9,575	5,681	1,321 (20,547)
대구	18,121	4,665	8,605	4,280	571
인천	10,809	476	905	9,114	314
광주	9,389	3,474	1,863	3,600	452
대전	7,193	2,116	874	3,807	396
울산	2,660	222	1,309	1,129	0
합계	127,212	15,747	31,138	28,373	51,954

주: 1998년 6월말 현재

( ) 은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의 97년말 채무액임.

□ 인천시의 1998년 12월말 본청기준 현재 사업별 채무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79억원으로 채무액의 3.1%
  - · 도로교량건설: 150억원으로 채무액의 1.2%
  - ·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229억원으로 채무액의 1.9%
- 기타특별회계: 781.5억원으로 채무액의 6.5%
  - · 주택건설: 748.9억원으로 채무액의 6.2%이며, 동채무액은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순수한 인천시의 채무가 아님.
  - · 교육기자재 확충: 32.6억원으로 채무액의 0.3%
- 공기업특별회계: 10,973.6억원으로 채무액의 90.4%
  - · 지하철 건설: 5,961.6억원으로 채무액의 49.1%
  - · 상수도 시설확충: 2,091.0억원으로 채무액의 17.2%
  - · 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636.0억원으로 채무액의 5.2%
  - · 지역개발기금조성: 1,285.0억원으로 채무액의 10.6%이며, 내부융자금임을 고

려하면 순수한 의미의 인천시 채무가 아님.

· 공영개발사업: 1997년말까지 지방채발행이 없었으나 1998년 하반기중 1,000억원의 기채가 이루어져 채무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 인천시 사업별 채무 현황(1998년말 현재)>

(단위: 억원, %)

구 분	98년 말 채무 규모		비 고
	금액	비율	
일반회계	**379.0**	**3.1**	
· 도로교량건설	150.0	1.2	
· 농산물도매시장건립 등	229.0	1.9	
기타 특별회계	**781.5**	**6.5**	
· 주택건설	748.9	6.2	
· 교육기자재 확충	32.6	0.3	
공기업 특별회계	**10,973.6**	**90.4**	
· 지하철 건설	5,961.6	49.1	
· 상수도 시설확충	2,091.0	17.2	
· 하수도/오수처리 시설확충	636.0	5.2	
· 지역개발기금조성	1,285.0	10.6	
· 공영개발사업	1,000.0	8.3	
계	12,134.1	100.0	

주: 1) 1998년 12월말 현재
2) 인천시 본청 기준

□ 따라서 인천시 본청기준 채무를 사업별로 볼 때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하철건설의 채무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아직은 채무부담이 작으나 중장기적으로 추가채무부담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동부문 채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임.

나. 인천시 채무구조 총괄

① 자금별 채무구조

□ 인천시 본청의 1998년 12월말기준 채무총액 1조 2,134.1억원중 증서차입에 의한 채무는 6,762.4억원으로 55.7%이며, 증권발행에 의한 채무는 5,371.7억원으로 44.3%를 차지하여 자금별 채무비중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인천시 자금별 채무구조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증서차입채		6,762.4	379.0	781.5	5,601.9
	정부자금	4,392.9	329.0	748.0	3,315.0
	지방공공자금	2,038.6	50.0	-	1,988.6
	차관자금	330.9	-	32.6	298.3
	민간자금	-	-	-	-
증권발행채		5,371.7	-	-	5,371.7
	매출공채	4,730.2	-	-	4,730.2
	해외공채	641.5	-	-	641.5
합계		12,134.1	379.0	781.5	10,973.6

주: 1) 1998년 12월말 현재
2) 인천시 본청 기준

□ 인천시 채무총액대비 자금별 채무비중을 보면, 증서차입채 중 정부자금은 36.2%, 지방공공자금은 16.8%, 해외차관자금은 2.7%, 민간자금은 0%로 재정자

금 및 제융자기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자금 즉, 상환조건이 가장 유리한 양질의 자금비중이 높음.

□ 채권시장에서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증권발행채의 경우 매출공채자금이 39.0%, 해외증권자금은 5.3%로 나타남. 증권발행채 중 모집공채가 없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지방채가 강제소화방식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의미함.

□ 이는 우리 나라 지방채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보편적인 현상임.

< 자금별 채무구조의 서울 및 광역시별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증서차입금					증권발행채			
		소계	정부자금	공공자금	차관	민간자금	소계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서울	9,219 (100.0)	6,296 (68.3)	4,347 (47.2)	0 (0.0)	1,550 (16.8)	399 (4.3)	2,923 (31.7)	0 (0.0)	2,923 (31.7)	0 (0.0)
부산	19,600 (100.0)	11,739 (59.9)	6,157 (31.4)	1,356 (6.9)	1,961 (10.0)	2,265 (11.6)	7,861 (40.1)	6,989 (35.7)	783 (4.0)	89 (0.5)
대구	17,550 (100.0)	8,512 (48.5)	5,671 (32.3)	616 (3.5)	1,781 (10.1)	444 (2.5)	9,038 (51.5)	3,136 (17.9)	5,698 (32.5)	204 (1.2)
인천	10,495 (100.0)	5,224 (49.8)	2,766 (26.4)	2,029 (19.3)	387 (3.7)	42 (0.4)	5,271 (50.2)	593 (5.7)	4,678 (44.6)	0 (0.0)
광주	8,937 (100.0)	5,812 (65.0)	3,634 (40.7)	1,327 (14.8)	336 (3.8)	515 (5.8)	3,125 (35.0)	833 (9.3)	1,968 (22.0)	324 (3.6)
대전	6,797 (100.0)	4,704 (69.2)	2,659 (39.1)	1,558 (22.9)	487 (7.2)	0 (0.0)	2,093 (30.8)	239 (3.5)	1,854 (27.3)	0 (0.0)
울산	2,660 (100.0)	2,432 (91.4)	1,203 (45.2)	856 (32.2)	362 (13.6)	11 (0.4)	228 (8.6)	0 (0.0)	228 (8.6)	0 (0.0)
합계	75,858 (100.0)	45,080 (59.4)	26,654 (35.1)	7,810 (10.3)	6916 (9.1)	3701 (4.9)	30,778 (40.6)	11,862 (15.6)	18,294 (24.1)	622 (0.8)

주: 1998년 6월말 현재 총채무액 중 산하단체 제외
( )은 총채무액대비 비중

□ 한편, 1998년 6월말 현재 서울 및 6개 광역시별로 자금별 채무구조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의 경우 산하단체를 제외한 인천시 채무총액 1조 495억원중 증서차입에 의한 채무는 5,224억원(49.8%), 증권발행에 의한 채무는 5,271억원(50.2%)으로 채무비중이 자금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반면에 대구를 제외한 울산,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은 증서차입에 의한 차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별 채무비중이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시 외채 현황 >

(단위: 천$, 백만¥, 백만원)

사업명	도입일	도입액	도입조건	이율(%)	도입화폐	채무액
교육기자재 확충(KFX자금)	'89.12.28	228 ($285)	3년거치 7년균분	7.00	$	72 ($59)
교육기자재 확충(7차 IBRD)	'91. 2.11	39 ($49)	5년거치 10년균분	6.69	$	39 ($32)
교육기자재 확충(11차 IBRD)	'94.11.22	2,052 ($2,565)	5년거치 10년균분	6.69	$	3,145 ($2,565)
가좌하수처리장 건설(ADB)	'86. 3.10	23,624 ($30,288)	5년거치 20년균분	6.33	$	29,833 ($24,336)
도시철도건설 (사무라이채)	'96. 4.26	43,898 (￥6,000)	10년거치 일시상환	3.70	￥	64,156 (￥6,000)
계 ₩		69,841				97,245
계 $		33,187				26,992
계 ￥		6,000				6,000

주: 1998년 12월 31일 전신환매도율 기준 적용: 1,225.09원/$, 1,069.27원/100￥

□ 인천시 채무총액 중 외화채무는 972.4억원(8.0%)으로 이 중 해외차관자금은 330.8억원이며, 외화표시 해외증권발행에 의한 채무는 641.6억원임.

□ 최근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임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서 발행한 엔화표시 6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채의 원화표시 채무부담금이 증대되고 있으나, 동 채권의 상환조건이 10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시점이 2006년이라는 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② 이율별 채무구조

□ 지방채 이율은 채권시장에서 지방채 소화를 위한 가장 큰 투자유인 요소인데 1998년 12월말 현재 인천시 채무의 경우 이율은 3~10%대에 분포되어 있음.

□ 인천시 본청기준 채무이율 분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율은 6~7%미만대로 채무총액의 45.6%인 5,536.4억원이며, 7%미만의 채무잔액이 채무총액의 60.6%에 달함.

□ 7%미만의 이율은 사상 최저금리를 보이고 있는 최근 국고채 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천시의 채무발생의 대부분이 고금리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기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이 모집공채 없이 매출공채로만 구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인천시의 본청기준 채무이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인 연율 10%이상의 채무는 1998년 말 현재 없으나, 일부 변동금리채무의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10%이상의 금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

□ 1998년 12월말 현재 인천시채무에 대한 평균 이율은 6.8%로 최근 회사채금리가 8~9%대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아 이자부담이 작음.

< 인천시 이율별 채무구조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5% 미만	1,127.4	204.0	223.8	699.6
5~6% 미만	690.8	-	-	690.8
6~7% 미만	5,536.4	-	31.8	5,504.6
7~8% 미만	2,654.3	125.0	0.7	2,528.6
8~9% 미만	1600.0	50.0	-	1,550.0
9~10% 미만	525.2	-	525.2	-
10~11% 미만	-	-	-	-
합 계	12,134.1	379.0	781.5	10,973.6

주: 1) 1998년 12월말 현재
2) 인천시 본청 기준

□ 한편, 1998년 6월말 현재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채무 이율구조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의 경우 산하단체를 제외한 채무총액의 67.4%인 7,060억원이 6% 미만의 금리에서 조달되고 11% 이상의 고금리로 조달한 채무는 없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기채가 된 반면,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 11~15%대의 고금리 채무가 각각 총채무의 18.3%, 6.3%, 2.6%,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자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임.

< 이율별 채무구조의 서울 및 광역시별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무이자	1~3%	4~6%	7~9%,	10%	11~15% 이상
서울	9,219 (100.0)	8 (0.1)	2,102 (22.8)	5,452 (59.1)	1,657 (18.0)	0 (0.0)	0 (0.0)
부산	19,600 (100.0)	0 (0.0)	1,258 (6.4)	5,659 (28.9)	3,802 (19.4)	5,301 (27.0)	3,580 (18.3)
대구	17,550 (100.0)	0 (0.0)	1,200 (6.8)	11,040 (62.9)	3,715 (21.2)	1,191 (6.8)	404 (2.3)
인천	10,495 (100.0)	0 (0.0)	1,021 (9.7)	6,039 (57.5)	2,827 (26.9)	608 (5.8)	0 (0.0)
광주	8,937 (100.0)	0 (0.0)	222 (2.5)	3,937 (44.1)	3,369 (37.7)	846 (9.5)	563 (6.3)
대전	6,797 (100.0)	0 (0.0)	191 (2.8)	4,596 (67.6)	1,831 (26.9)	0 (0.0)	179 (2.6)
울산	2,660 (100.0)	0 (0.0)	70 (2.6)	1,515 (57.0)	866 (32.6)	209 (7.9)	0 (0.0)
합계	75,258 (100.0)	8 (0.01)	6,064 (8.1)	38,238 (50.8)	18,067 (24.0)	8,155 (10.8)	4,726 (6.3)

주: 1998년 6월말 현재 총채무액 중 산하단체 제외
( )은 총채무액대비 비중

□ 또한 구·군 및 산하단체를 제외한 인천시 본청의 채무총액 1조 2,134.1억원 중 변동금리 적용 채무액은 주로 재경부 및 환경부의 재특자금인 2,551억원으로 동 채무의 이율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함.

□ 1998년중 국내경제가 IMF자금지원체제하에서 시중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1997년말 5.9%에서 1998년말 9.4%로 3.5%포인트 상승하였던 인천시의 변동금리채무이율은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안정됨에 따라 1999년 초부터 연율 7%로 하향조정됨.

□ 인천시의 경우 시중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채무비중이 채무총액의 21.0%로서 상대적으로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작으나, 이를 1997년말과 비교할 때 당시 8.7%보다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임.

< 인천시 변동금리적용 채무 현황 >

(단위: 억원, %)

사업명	발행년도	자금종류	발행액	잔액	이율변동내역		
					97년말	98년말	증감
도시철도건설	1997	재특자금(재경부)	500	500	6.0	9.5	3.5
	1998	"	590	590	-	9.5	-
도로사업	1997	"	50	50	6.0	9.5	3.5
수해복구사업	1998	"	25	25	-	9.5	-
문학산터널	1997	"	50	50	6.0	9.5	3.5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1998	공공자금관리기금(재경부)	1,000	1,000	-	8.43	-
맑은물 공급	1998	재특자금(환경부)	126	126	-	9.1	-
	1997	"	110	110	5.6	9.1	3.5
	1996	"	100	100	5.6	9.1	3.5
계			2,551	2,551	-	-	-

주: 1998년 12월말 현재

③ 상환재원별 채무구조

□ 지방채무 상환재원은 시비와 특정재원으로 구분되는데, 특정재원은 공기업수익금, 실수요자부담금, 기타 등으로 나누어짐.

□ 인천시 본청기준 채무총액(원금기준)의 상환재원 중 시비는 379.0억원으로 3.1%에 불과한 반면 특정재원은 1조1,755.1억원으로 96.9%를 차지하여 특정재원을 통한 채무상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특정재원 중 공기업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4.9%, 실수요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4%, 기타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7%로 공기업수익금이 인천시 채무상환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채무를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수익금이나 실수요자 부담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건전한 채무운영으로 평가되나 공기업수익이 예상대로 발생되지 않을 경우 시비부담의 증대가능성이 상존함.

< 인천시 상환재원별 채무구조 >

(단위: 억원)

구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시비		379.0	379.0	-	-
특정재원		11,755.1	-	781.5	10,973.6
	공기업수익금	9,973.6	-	-	9,973.6
	실수요자부담금	749.0	-	749.0	-
	기타수익금	1,032.5	-	32.5	1,000.0
합계		12,134.1	379.0	781.5	10,973.6

주: 1) 1998년 12월말 현재
2) 인천시 본청 원금기준

□ 한편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상환재원별 채무비율구조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의 경우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시비상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채무비중이 높은 지하철부문을 산하공사계정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건전한 채무상환구조를 나타냄.

□ 특히 대구시의 경우 상환재원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6%로 채무상환으로 인해 시재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광역시에서도 광주 47.2%, 대전 38.8%, 부산 38.4%, 울산 8.3% 등 시비부담이 매우 높음.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시의 경우에도 특정재원 중 공기업수익금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별로 경영수익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 시비부담이 증대될 개연성이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천시 공기업특별회계부문의 연도별 채무상환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의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시비부담으로의 이전가능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상환재원별 채무구조의 서울 및 광역시별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계	시비	특정재원
서울	9,219 (100.0)	444 (4.8)	8,775 (95.2)
부산	19,600 (100.0)	7,520 (38.4)	12,080 (61.6)
대구	17,550 (100.0)	13,261 (75.6)	4,289 (24.4)
인천	10,495 (100.0)	477 (4.5)	10,018 (95.5)
광주	8,937 (100.0)	4,215 (47.2)	4,722 (52.8)
대전	6,797 (100.0)	2,639 (38.8)	4,158 (61.2)
울산	2,660 (100.0)	222 (8.3)	2,438 (91.7)
합계	75,258 (100.0)	28,778 (38.2)	46,480 (61.8)

주: 1998년 6월말 현재 총채무액 중 산하단체 제외
( )은 총채무액대비 비중

④ 상환기간별 채무구조

□ 인천시 본청 채무총액의 상환기간별 채무구조를 보면, 채무총액의 41.9%인 5,080.2억원이 상환기간 5~9년의 중기채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환기간 10~15년의 중장기채는 5,580.5억원으로 46.0%, 상환기간 16년 이상인 장기채는 1,473.4억원으로 12.1%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상환기간 4년 미만의 단기채는 없음.

□ 다만, 상환기간이 5년인 채무가 4,730.2억원으로 39.0%에 달해 중기적으로는 채무상환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액 1조 973.6억원 중 43.1%인 4,730.2억원의 상환기간이 5년에 불과한 반면, 공기업의 경영수익이 단기간(5년)에 극대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 회계부문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인천시 상환기간별 채무구조 >

(단위: 억원)

구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년미만	-	-	-	-
5년	4,730.2	-	-	4,730.2
8년	350.0	50.0	-	300.0
10년	1,114.9	204.0	0.8	910.1
12년	1,420.0	-	-	1,420.0
15년	3,045.6	125.0	31.8	2,888.8
20년	951.3	-	525.1	426.2
25년이상	522.1	-	223.8	298.3
합계	12,134.1	379.0	781.5	10,973.6

주: 1) 1998년 12월말 현재
2) 인천시 본청 원금기준

□ 한편, 1998년 6월말을 기준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별로 산하기관을 제외한 채무총액의 상환기간을 비교하면, 인천시의 경우 상환기간 3년미만의 단기채무

가 없는 반면 부산 27.7%, 대구 9.1%, 광주 7.8%, 울산 0.4% 등 여타 광역시의 경우 단기채무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상환기간 11년 이상의 장기채무비율을 비교해 보면, 울산 75.5%, 서울 61.0% 대전 48.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 36.2%, 부산 39.2% 등은 상대적으로 장기채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인천시의 경우 1998년 6월말에는 상환기간 11년 이상의 장기채무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평균인 44.6%에 못 미친 42.7%로 채무상환기간의 장기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2월말 기준으로는 48.9%로서 채구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 상환기간별 채무의 서울 및 광역시별 비교 >

(단위: 억원, %)

	합계	1년	2~3년	4~5년	6~10년	11~15년%	16년이상
서울	9,219 (100.0)	0 (0.0)	0 (0.0)	243 (2.6)	3,349 (36.3)	1,728 (18.7)	3,899 (42.3)
부산	19,600 (100.0)	124 (0.6)	5,315 (27.1)	5,040 (25.7)	1,437 (7.3)	6,340 (32.3)	1,344 (6.9)
대구	17,550 (100.0)	1,265 (7.2)	337 (1.9)	6,840 (39.0)	2,749 (15.7)	4,089 (23.3)	2,270 (12.9)
인천	10,495 (100.0)	0 (0.0)	0 (0.0)	4,354 (41.5)	1,663 (15.8)	2,832 (27.0)	1,646 (15.7)
광주	8,937 (100.0)	0 (0.0)	700 (7.8)	3,108 (34.8)	1,035 (11.6)	3,192 (35.7)	902 (10.1)
대전	6,797 (100.0)	0 (0.0)	0 (0.0)	1,854 (27.3)	1,649 (24.3)	2,725 (40.1)	569 (8.4)
울산	2,660 (100.0)	0 (0.0)	10 (0.4)	229 (8.6)	411 (15.5)	738 (27.7)	1,272 (47.8)
합계	75,258 (100.0)	1,389 (1.8)	6,362 (8.5)	21,668 (28.8)	12,293 (16.3)	21,644 (28.8)	11,902 (15.8)

주: 1998년 6월말 현재 총채무액 중 산하단체 제외
( )은 총채무액대비 비중

(2) 인천시 채무의 건전성 진단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는 채무관련지표는 재정의 건정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됨.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능력상태에 비해서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또는 어떤 구조의 채무를 지니고 있는가는 향후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인천시 채무의 안정성을 진단해보고 서울 및 5개 광역시와 비교하고자 함.

- 1인당 채무부담액: 자치단체의 채무액을 인구규모로 나눈 것으로 실질적인 1인당 채무부담액을 측정할 수 있음.
- 채무상환비비율: 최근 4년간의 평균일반재원결산액 중 평균채무상환액비율을 의미하여 이는 채무액을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 채무부담능력도: 미래에 상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총채무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능력도를 비교할 수 있음.

가.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

□ 자치단체의 인구 1인당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원금기준) 규모를 산정해내는 지표로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액을 인구수로 비교하여 나타내는 지표임.

□ 인구 1인당 채무액이 많으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세출의 탄력성이 하락하게 됨.

□ 동지표는 자치단체의 채무액을 주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인구규모에 의한 실질적인 채무부담액의 성격임.

□ 동지표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산식: $\frac{\text{지방채무현재액}}{\text{인 구}}$ (천원)

① 행정자치부 기준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

□ 1998년 12월말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1997년 회계연도의 자치단체별 채무현황에 의하면, 인천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시민 1인당 51,630원으로 채무부담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 및 6개 광역시 1인당 채무부담액 평균은 228,610원으로 인천시는 동 평균치보다 176,980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산정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만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비중이 높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 단체부문의 채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한편, 1인당 채무부담액 지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광역시는 대구, 광주, 부산 등으로 각각 시민 1인당 666,900원, 421,430원, 356,680원 등이며 이는 동 도시들의 일반회계 채무비중이 높은데 기인함.

< 서울 및 광역시별 1인당 채무부담액 >

(단위: 천원, 명, 원)

자치단체명	산식별 수치		지표값	순위
	지방채무액	인구수		
대구	1,663,736,361	2,494,378	666,990	1
광주	559,021,058	1,326,478	421,430	2
부산	1,413,391,000	3,865,114	365,680	3
대전	380,436,133	1,317,642	288,720	4
울산	178,992,839	1,013,070	176,680	5
서울	895,482,000	10,357,628	86,460	6
인천	126,403,050	2,448,045	51,630	7
평균	5,217,462,442	22,822,355	228,610	-

주: 1997년도 회계연도말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종합분석(1998.12)

②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단체 고려시 1인당 채무부담액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단체의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시민 1인당 채무액을 서울 및 광역시별로 보면, 인천시는 시민 1인당 44만 1,536원으로 대구, 광주, 서울, 대전, 부산에 이어 6위로 나타남.

□ 특히 울산시가 최근 광역시로 승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천시가 가장 시민의 채무부담액이 작음.

□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1인당 채무부담액 평균은 557,401원으로 인천시는 동 평균치보다 115,865원이 작음.

□ 한편, 시민 1인당 채무가 가장 많은 도시는 역시 대구, 광주, 서울 등으로 각각 726,474원, 707,814원, 561,123원임.

□ 특히 부산의 경우 교통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지하철채무를 환입하면 시민 1인당 채무는 1,072,879원에 이르러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1인당 채무부담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채무총액의 1인당 채무 비교 >

(단위: 억원, 명, 원)

자치단체명	산식별 수치		지표값	순위
	지방채무액	인구수		
대구	18,121	2,494,378	726,474	1
광주	9,389	1,326,478	707,814	2
서울	58,119	10,357,628	561,123	3
대전	7,193	1,317,642	545,899	4
부산	20,921 (41,468)	3,865,114	541,278 (1,072,879)	5 (7)
인천	10,809	2,448,045	441,536	6
울산	2,660	1,013,070	262,568	7
평균	127,212	22,822,355	557,401	-

주: 1998년 6월말 현재

( )은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의 97년말 채무액임.

나. 채무상환비비율

□ 세입·세출예산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중 지방채와 채무부담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임.

□ 채무상환비비율은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며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탄력성이 저하됨을 의미함.

□ 동지표는 지방채무의 상환능력, 조건 등을 분석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지방채무가 자치단체의 일반재정에 미치는 압박정도를 측정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임.

□ 동지표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일반재원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이며 지방채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액의 합계임.

- 대상: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단체의 채무는 제외
- 산식: $\frac{\text{최근 4년간 평균 지방채무상환액}}{\text{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서울 및 광역시별 채무상환비비율 >

(단위: %, 억원)

자치단체명	산식별 수치		지표값	순위
	채무상환액	일반재원결산액		
인천	444.5	8,217.7	5.41	1
서울	3,797.2	39,647.2	9.58	2
부산	1,387.0	11,114.0	12.48	3
광주	877.3	5,907.7	14.85	4
대구	1,383.2	8,970.7	15.42	5
대전	819.6	4,666.8	17.56	6
울산	6,266.8	3,521.6	17.80	7
평균	9,335.7	82,045.7	11.38	-

주: 1997년도 회계연도말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종합분석(1998.12)

□ 1997년 회계연도에서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일반재원결산액대비 채무상환액인 채무상환비비율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5.41%로 가장 낮아 1위를 차지함.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채무가 일반재정에 미치는 압박정도면에서 서울 및 그 외 광역시에 비해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반재원대비 채무상환액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시는 대전 및 울산으로 각각 17.56%, 17.80%를 기록함.

다. 채무부담능력도

□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상환해야할 총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지표임.

□ 채무부담능력도는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며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의 채무에 대한 능력도가 낮음.

□ 동지표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산식: $\frac{\text{지방채무총액}}{\text{지역총생산}(GRP)\ \text{또는}\ \text{공시지가총액}} \times 100$

① 행정자치부 기준 채무부담능력도

□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단체의 채무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채무액 및 지역총생산간의 비율인 채무부담능력도를 산출한 결과, 인천시는 0.92%로 7개 시중 가장 작아 미래의 채무상환능력면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구시는 채무부담능력도가 15.74%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상의 채무액대비 공시지가총액의 비율에 의한 채무부담능력도를 산출한 결과, 동 지표상에서도 인천시는 0.21%로 가장 낮아 미래의 채무부담 능력면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

로 나타남.

□ 한편 공시지가로 본 채무부담 능력도면에서 가장 열등한 광역시는 지역총생산과 마찬가지로 대구시로 2.54%를 나타냄.

< 서울 및 광역시별 채무부담능력도 >

(단위: %, 억원)

자치단체명	산식별수치			지표값			
	채무액(A)	GRP(B)	공시지가(C)	(A/B)	순위	(A/C)	순위
인천	1,264	137,671	602,657	0.92	1	0.21	1
서울	8,955	645,144	4,025,154	1.39	2	0.22	2
대전	3,804	55,739	302,429	6.83	3	1.26	4
부산	14,134	183,544	1,030,519	7.70	4	1.37	5
광주	5,590	59,080	346,837	9.46	5	1.61	6
대구	16,637	105,680	654,044	15.74	6	2.54	7
울산	1,790	-	250,400	-	-	0.71	3
평균	8,951	121,675		7.36		0.87	

주: 1997년도 회계연도말 기준
GRP(1990년 불변가격)는 1996년말 기준
총필지 중 비과세 필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종합분석(1998. 12)

②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단체 고려시 채무부담능력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단체의 채무를 모두 고려한 채무총액과 GRP대비 채무부담능력도를 서울 및 광역시별로 보면, 인천시는 이 경우에도 7.85%로 가장 작아 미래의 채무부담능력도면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채무부담능력도가 저조한 도시로는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각각 17.15%, 15.89%, 12.90%를 나타냄. 특히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지하철채무를 환입하면 채무부담능력도는 22.59%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중 가장

열등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채무총액과 공시지가총액의 비율로 나타낸 채무부담능력도를 서울 및 6개 광역시별로 보면, 인천시는 1.79%로 울산, 서울에 이어 3위로 나타남.

□ 인천시는 미래의 채무부담능력도면에서 지역총생산 기준보다는 공시지가총액 기준에서 미래의 채무부담능력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시의 지방세입에 지역총생산(부가가치세)보다는 공시지가(재산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더 정확한 판단기준으로 사료됨.

□ 다만, 공시지가총액 기준면에서도 인천시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의 광역시보다는 채무부담능력도가 매우 우월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및 산하단체의 채무고려시 채무부담능력도 >

(단위: %, 억원)

자치단체명	산식별수치			지표값순위			
	채무액(A)	GRP(B)	공시지가(C)	(A/B)	순위	(A/C)	순위
인천	10,809	137,671	602,657	7.85	1	1.79	3
서울	58,119	645,145	4,025,154	9.01	2	1.44	2
부산	20,921 (41,468)	183,544	1,030,519	11.40 (22.59)	3 (7)	2.03 (4.02)	4 (7)
대전	7,193	55,739	302,429	12.90	4	2.38	5
광주	9,389	59,080	346,837	15.89	5	2.71	6
대구	18,121	105,680	654,044	17.15	6	2.77	7
울산	2,660	-	250,400	-	7	1.06	1
평균	124,552	1,186,8583	7,212,040	10.49		1.76	

주: 1997년도 회계연도말 기준
GRP(1990년 불변가격)는 1996년말 기준
총필지 중 비과세 필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임.
( )은 부산시 교통관리공단의 97년말 채무액임.

2. 인천시 채무 상환계획

□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인천시 채무현황을 바탕으로 채무상환계획을 회계별 및 사업별로 살펴보고자함.

□ 이를 위해 먼저 1998년 12월말 현재 인천시 채무총액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상환계획을 사업별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의 채무상환계획을 검토한 후 종합적인 채무상환계획을 정리할 것임.

(1) 인천시 공기업특별회계부문의 채무상환계획

가. 지하철 채무상환계획

□ 효율적인 도시철도 건설의 추진을 목적으로 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93. 12. 7 조례 제2775호)에 근거하고 있음.

□ 도시철도사업의 채무상환계획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채무상환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3호선의 추가 건설에 따른 채무상환계획도 분석하여야 하나, 도시철도 2,3호선의 사업착공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1호선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지하철(도시철도 1호선)사업 사업개요 >

(단위: 억원)

구분	총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사업비	16,593	11,715	2,895	1,983
국 비	5,936	3,634	1,254	1,048
시 비	4,612	3,157	925	530
차입금	6,045	4,924	716	405

주: 1999년 차입금 405억원은 1999년 도시철도공채 발행액 942억원 중 건설비임.

□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사업의 채무발행 및 상환 추이

- 1985년이후 1998년말 현재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사업의 채무발행은 연평균 1,285억원이 증가한 반면, 원금상환은 채무상환조건상 거치기간에 따라 1998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자부담 또한 4개년 중 313억원에 불과함.
-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사업의 채무잔액은 1998년말 현재 5,962억원임.

< 지하철(도시철도 1호선)사업 채무발행 및 상환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발 행		865	1,341	1,700	1,234
상 환	원 금	-	-	-	298
	이 자	17	33	48	215
	소 계	17	33	48	513
채무 잔액		1,985 (-)	3,326 (67.6)	5,026 (51.1)	5,962 (18.6)

주: ( )은 전년대비 채무잔액 증가율

□ 상환계획 개요

- 분석기간: 1999년~2009년(11년간)
- 부채규모: 5,962억원(1998년말 현재 부채잔액)
-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상환계획
  - 원금: 차환발행
  - 이자: 시비부담
  - 운영흑자(적자): 적자에 대해서는 개통후 초기 3개년동안 각각 국비 100%, 50%, 25%로 부담하며,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운영흑자가 나타날 경우 원금상환에 이용
- 동 상환계획안의 장·단점
  - 장점: 부채규모가 점차 감소
  - 단점: 시비부담 과다

□ 상환계획안에 따른 재원소요액 및 조달재원 마련 방안

- 1998년말 현재 인천시 도시철도 1호선의 채무잔액 5,962억원에 대한 1999~2009년중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운영수지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는 운영수지로 만기도래하는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비로 조달계획인 이자분에 대해서도 상환가능하게 될 전망임.
- 다만, 동 추정은 동 기간중 원금상환을 위해 차환발행하는 채무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상환계획안에 의거하여 2008년 지하철사업의 채무잔액은 5,264억원임

< 인천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상환계획안 >

(단위: 억원)

년도	자금소요액 추정			계	재원조달계획			채무잔액
	원금	이자	운영수지		차환(공채)	국비	시비	
1999	509	320	66	895	509	66	320	5,962
2000	725	385	66	1,176	725	36	415	5,962
2001	781	382	60	1,223	781	15	427	5,962
2002	1,096	478	-5	1,569	1,091	-	478	5,957
2003	689	316	-17	988	672	-	316	5,940
2004	205	120	-101	224	104	-	120	5,839
2005	205	106	-118	193	87	-	106	5,721
2006	80	81	-216	-55	-	-	81	5,585
2007	145	59	-245	-41	-	-	59	5,485
2008	145	49	-366	-112	-	-	49	5,264
2009이후	1,382	111	-	-	-	-	111	-

□ 도시철도 1호선의 장기 운영수지 추정

- 1호선 세입측면

· 수송수요는 기본설계보고서(교통개발연구원)의 예측수요 1,030천명/일×서울, 부산, 대구 개통초기 실적률 평균 26.8%를 적용하여 276천명/일

· 수송률 증가는 2001~2008년까지는 7.2%,

2009~2011년은 4%,

2012~2015년은 2.6% 적용

· 운임요금은 기본 450원으로 하고 매 2년 마다 50원씩 인상적용함.

· 영업요금외 수입은 영업수입대비 3% 적용 추정

- 1호선 운영경비, 지출측면

· 인건비: 2000년 기준으로 인당 평균연봉 2,000만원×1,120명=224억원

· 2001년부터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5%로 적용

· 기타 경비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의 115%로 예측

< 도시철도 1호선의 장기운영수지 전망>

(단위: 억원)

연도	세입(A)			세출(B)			운영수지 (C=A-B)
	계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계	인건비	기타	
1999	87	81	6	330	200	130	(243)
2000	416	404	12	482	224	258	(66)
2001	445	432	13	505	235	270	(60)
2002	536	521	15	531	247	284	5
2003	575	558	17	558	259	299	17
2004	686	666	20	585	272	313	101
2005	733	712	21	615	286	329	118
2006	861	839	22	645	300	345	216
2007	922	900	22	677	315	362	245
2008	1,078	1,054	24	712	331	381	366
2009	1,118	1,093	25	746	347	399	372
2010	1,258	1,231	27	785	365	420	473
2011	1,309	1,281	28	823	383	440	486
2012	1,449	1,419	30	864	402	462	585
2013	1,482	1,451	31	907	422	485	575
2014	1,629	1,596	33	955	444	511	674
2015	1,671	1,637	34	1,002	466	536	669

자료: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나. 상수도사업 채무상환계획

□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사업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89. 8. 25 조례 제2328호)에 근거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 채무상환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발 행		230	326	350	226
상 환	원 금	93	121	157	178
	이 자	106	113	133	145
	소 계	199	234	290	323
채무 잔액		1,645 (-)	1,850 (12.5)	2,043 (24.2)	2,091 (2.4)

□ 상수도사업의 총사업비는 6,341.5억원이며 1997년 말 현재 기투자액 795.1억원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투자계획은 5,546.4억원임.

□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은 향후 투자계획분의 66.1%인 3,683.5억원이며 2,003년 이후는 1,862.9억원이 예정되어 있음.

< 상수도사업 재정전망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계 획 기 간				
		1998	1999	2000	2001	2002
세입추계	9,212.5	1,660.5	1,786.8	1,876.9	1,858.7	2,029.6
경상경비추계	6,793.1	1,263.4	1,353.2	1,384.6	1,398.5	1,393.4
가용재원	2,419.4	397.1	433.6	492.3	460.1	636.3
투자사업	3,683.5	618.6	827.6	816.3	531.2	889.8
부족재원	1,264.1	221.5	394.0	324.0	71.1	253.5

주: 경상경비추계에는 동기간중 채무상환액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 상환계획 개요(1998년말 현재 채무잔액 대상)

- 분석기간: 1999년~2009년(11년간)
- 부채규모: 1998년 말 채무잔액 2,091억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환계획: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사업별 독립채산제 운영 예정에 따라 재원조달은 차환발행 및 상수도요율 인상에 의한 경영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임.
- 다만, 상수도사업의 채무잔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만기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차환발행을 통해 채무잔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전망임.

□ 상환계획안에 따른 재원소요액 및 조달재원 마련 방안

- 1998년말 현재 상수도사업의 채무잔액 2,091억원에 대한 1999~2009년중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 다만, 동 추정은 동 기간중 원금상환을 위해 차환발행하는 채무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환계획안 >

(단위: 억원)

년도	자금소요액 추정		계	재원조달계획	
	원금	이자		일반회계	자체재원
1999	216	138	354	-	354
2000	236	122	358	-	358
2001	240	104	344	-	344
2002	222	88	310	-	310
2003	190	74	264	-	264
2004	202	61	263	-	263
2005	202	47	249	-	249
2006	165	34	199	-	199
2007	128	25	153	-	153
2008	106	16	122	-	122
2009이후	184	22	206	-	206

주: 자체재원에는 채무원금에 대한 차환발행이 포함된 수치임.

□ 상수도사업 상환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채무잔액 추정

- 1998년 현재 채무잔액 2,091억원인 상수도사업의 채무잔액은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1999~2002년 중 순채무증가액을 고려할 경우 2002년 3,134억원에 이를 전망임.

< 상수도사업 채무잔액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1998년말	추정기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전기채무잔액	2,043	2,091	2,485	2,809	2,880
금기순채무	48	394	324	71	254
금기채무잔액	2,091	2,485	2,809	2,880	3,134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다. 하수도사업 채무상환계획

□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을 목적으로 하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84. 12. 24 조례 제1846호)에 근거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채무상환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발 행		-	43	-	-
상 환	원 금	-	-	-	-
	이 자	-	-	2	2
	소 계	-	-	2	2
채무 잔액		-	43	43	43

□ 하수도사업의 총사업비는 4,350.3억원이며 1997년말 현재 기투자액 1,490.6억원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투자계획은 2,859.8억원임.

□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은 향후 투자계획분의 89.8%인 2,566.9억원이며 2,003년 이후는 42.9억원이 예정되어 있음.

< 하수도사업 재정전망 >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계 획 기 간				
		1998	1999	2000	2001	2002
세입추계	3,448.5	438.5	694.3	715.1	810.1	790.5
경상경비추계	1,603.8	231.7	327.8	336.3	345.3	362.7
가용재원	1,844.7	206.8	366.6	378.7	464.8	427.8
투자사업	2,566.9	206.8	479.3	616.7	696.1	568.0
부족재원	722.2	-	112.7	238.0	231.3	140.2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 상환계획 개요(1998년말 현재 채무잔액 대상)

- 분석기간: 1999년~2009년(11년간)
- 부채규모: 1998년말 채무잔액 43억원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본부의 상환계획: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사업별 독립채산제 운영 예정에 따라 재원조달은 차환발행 및 하수도요율 인상에 의한 경영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임.
- 다만, 하수도사업의 채무잔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만기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차환발행을 통해 채무잔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전망임.

□ 상환계획안에 따른 재원소요액 및 조달재원 마련 방안

- 1998년말 현재 상수도사업의 채무잔액 43억원에 대한 1999~2009년중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 다만, 동 추정은 동 기간중 원금상환을 위해 차환발행하는 채무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인천시 하수도사업본부의 상환계획안 >

(단위: 억원)

년도	자금소요액 추정		계	재원조달계획	
	원금	이자		일반회계	자체재원
1999	-	2	2	-	2
2000	-	2	2	-	2
2001	-	2	2	-	2
2002	4	2	6	-	6
2003	4	2	6	-	6
2004	4	2	6	-	6
2005	4	1	5	-	5
2006	4	1	5	-	5
2007	4	1	5	-	5
2008	4	1	5	-	5
2009이후	15	1	16	-	16

주: 자체재원에는 채무원금에 대한 차환발행이 포함된 수치임.

□ 하수도사업 상환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채무잔액 추정

- 1998년 현재 채무잔액 43억원인 하수도사업의 채무잔액은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1999~2002년 중 순채무증가액을 고려할 경우 2002년 765억원에 이를 전망임.

< 하수도사업 채무잔액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1998년말	추정기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전기채무잔액	43	43	156	394	625
금기순채무	-	113	238	231	140
금기채무잔액	43	156	394	625	765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라. 공영개발사업

□ 각종 공영개발사업과 국가공공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89. 6. 26 조례 제2322호)에 근거하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 채무상환 추이 및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발 행		-	-	-	1,000
상 환	원 금	-	-	-	-
	이 자	-	-	-	-
	소 계	-	-	-	-
채무 잔액		-	-	-	1,000

□ 공영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8,902.0억원이며 1997년말 현재 기투자액 2,536.7억원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투자계획은 1조 6,365.3억원임.

□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은 향후 투자계획분의 35.1%인 5,739.6억원이며 2,003년 이후는 1조 625.7억원이 예정되어 있음.

< 공영개발사업 재정전망 >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1998	1999	2000	2001	2002
세입추계	6,553.6	1,673.4	1,329.4	779.1	1,430.4	1,341.3
경상경비추계	1,314.0	171.8	608.4	172.1	180.4	181.3
가용재원	5,239.6	1,501.6	721.0	607.0	1,250.0	1,160.0
투자사업	5,739.6	2,001.6	721.0	607.0	1,250.0	1,160.0
부족재원	500.0	500.0	-	-	-	-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 상환계획 개요(1998년말 현재 채무잔액 대상)

- 분석기간: 1999년~2009년(11년간)
- 부채규모: 1998년말 채무잔액 1,000억원
-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상환계획: 재원조달은 차환발행 및 매각·임대수수료 등 경영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임.

□ 상환계획안에 따른 재원소요액 및 조달재원 마련 방안

- 1998년말 현재 공영개발사업의 채무잔액 1,000억원에 대한 1999~2009년중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 다만, 동 추정은 동 기간중 원금상환을 위해 차환발행하는 채무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단의 상환계획안 >

(단위: 억원)

년도	자금소요액 추정		계	재원조달계획		
	원금	이자		차환(공채)	일반회계	자체재원
1999	-	84	84	-	-	84
2000	-	84	84	-	-	84
2001	-	84	84	-	-	84
2002	-	84	84	-	-	84
2003	-	84	84	-	-	84
2004	100	84	184	-	-	184
2005	100	76	176	-	-	176
2006	100	67	167	-	-	167
2007	100	59	159	-	-	159
2008	100	51	151	-	-	151
2009이후	500	128	628	-	-	628

주: 자체재원에는 채무원금에 대한 차환발행이 포함된 수치임.

□ 공영개발사업 상환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채무잔액 추정

- 1998년 현재 채무잔액 1,000억원인 공영개발사업의 채무잔액은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1999~2002년 중 투자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계획함에 따라 2002년에도 1,000억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공영개발사업 채무잔액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1998년말	추정기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전기채무잔액	-	1,000	1,000	1,000	1,000
금기순채무	1,000	-	-	-	-
금기채무잔액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마.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89. 8. 21 조례 제2327호)에 근거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 추이 및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발 행		254	374	204	168
상 환	원 금	82	179	244	292
	이 자	28	60	83	98
	소 계	110	239	327	390
채무 잔액		1,254	1,449	1,409	1,285

□ 1998~2000년 중 지역개발기금의 세입 및 세출추계액은 각각 2,619.7억원 및 4,119.7억원으로 1,500억원이 부족재원임.

< 지역개발기금 재정전망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계획기간				
		1998	1999	2000	2001	2002
세입추계	2,619.7	446.6	512.1	547.4	578.7	535.0
세출추계	4,119.7	746.6	812.1	847.4	878.7	835.0
부족재원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 상환계획 개요(1998년말 현재 채무잔액 대상)

- 분석기간: 1999년~2009년(11년간)
- 부채규모: 1998년말 채무잔액 1,285억원
- 인천광역시의 지역개발기금 채무의 상환계획: 융자금회수를 통해 2003년까지 상환할 계획임.

□ 상환계획안에 따른 재원소요액 및 조달재원 마련 방안

<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계획안 >

(단위: 억원)

년도	자금소요액 추정		계	재원조달계획		
	원금	이자		차환(공채)	일반회계	융자금회수
1999	286	99	385	-	-	385
2000	254	86	340	-	-	340
2001	374	125	499	-	-	499
2002	204	69	273	-	-	273
2003	168	57	225	-	-	225

□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채무잔액 추정

< 지역개발기금 채무잔액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1998년말	추정기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전기채무잔액	1,409	1,285	1,585	1,985	2,285
금기순채무	-124	300	300	300	300
금기채무잔액	1,285	1,585	1,985	2,285	2,285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바. 인천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상환계획 종합

< 인천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상환계획 >

(단위: 억원)

구분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오수처리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합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999	509	320	216	138	35	48	-	84	286	99	1,046	690
2000	725	385	236	122	38	46	-	84	254	86	1,253	723
2001	781	382	240	104	39	42	-	84	374	125	1,434	739
2002	1,096	478	222	88	49	39	-	84	204	69	1,571	758
2003	689	316	190	74	56	35	-	84	168	57	1,104	566
2004	205	120	202	61	58	31	100	84	-	-	565	296
2005	205	106	202	47	61	27	100	76	-	-	567	255
2006	80	81	165	34	63	22	100	67	-	-	1,128	205
2007	145	59	128	25	61	17	100	59	-	-	433	160
2008	145	49	106	16	53	12	100	51	-	-	403	130
2009이후	1,382	111	184	22	124	13	500	128	-	-	2,190	274

주: 상환계획 중 차환채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금액은 제외한 수치임.

(2) 인천시 기타회계부문의 채무상환계획

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상환계획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설 및 운용조례('77. 3. 18 조례 제1068호)에 근거하고 있음.

□ 1998년 6월말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채무액 859.6억원은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시영아파트 입주시 입주자가 상환한다는 점에서 인천시의 순채무가 아님.

□ 1998~2000년 중 주택사업의 세입 및 세출추계액은 1,175.7억원으로 균형예산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부족재원은 없음.

< 주택사업 재정전망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1998	1999	2000	2001	2002
세입추계	117,573	51,173	17,125	16,425	16,425	16,425
세출추계	117,573	51,173	17,125	16,425	16,425	16,425
부족재원	0	0	0	0	0	0

자료: 인천광역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년)

< 주택사업 채무상환 추이 및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발 행		-	265	-	-
상 환	원 금	77	33	48	192
	이 자	68	65	66	77
	소 계	145	98	114	269
채무 잔액		757	989	941	749

□ 상환계획 개요(1998년말 현재 채무잔액 대상)

- 분석기간: 1999년~2009년(11년간)
- 부채규모: 1998년말 채무잔액 749억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상환계획안 >

(단위: 억원)

년도	자금소요액 추정		계	재원조달계획		
	원금	이자		차환(공채)	일반회계	융자금상환
1999	74	52	126	-	-	126
2000	90	44	134	-	-	134
2001	108	35	143	-	-	143
2002	105	23	128	-	-	128
2003	91	15	106	-	-	106
2004	34	9	43	-	-	43
2005	12	8	20	-	-	20
2006	6	7	13	-	-	13
2007	1	6	7	-	-	7
2008	1	6	7	-	-	7
2009이후	227	73	300	-	-	300

나. 기타 특별회계 채무상환계획 종합

< 인천시 기타특별회계 채무상환계획 >

(단위: 억원)

	주택 사업		인천대 기자재확충 등		합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999	74	52	2	2	76	54
2000	90	44	4	2	94	46
2001	108	35	3	2	111	37
2002	105	23	3	1	108	24
2003	91	15	3	1	94	16
2004	34	9	3	2	37	11
2005	12	8	3	-	15	8
2006	6	7	4	-	10	7
2007	1	6	3	-	4	6
2008	1	6	4	-	5	6
2009이후	227	73	-	2	227	75

(3) 인천시 일반회계부문의 채무상환계획

< 인천시 일반회계 채무상환계획 >

(단위: 억원)

	도로교량건설		기 타		합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999	-	11	-	8	-	19
2000	10	11	10	8	20	19
2001	10	10	22	8	32	18
2002	10	9	29	7	39	16
2003	20	8	29	6	49	14
2004	20	7	32	5	52	12
2005	10	6	32	4	42	10
2006	10	5	32	3	42	8
2007	10	4	22	2	32	6
2008	10	3	10	1	20	4
2009이후	40	7	12	3	52	10

(4) 인천시 채무상환계획 총괄

< 인천시 채무상환계획 요약>

(단위: 억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 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1999	-	19	19	76	54	130	1,045	690	1,735	1,121	762	1,883
2000	20	19	39	94	46	140	1,252	723	1,975	1,366	787	2,153
2001	32	18	50	111	37	148	1,433	739	2,172	1,576	793	2,369
2002	39	16	55	108	24	133	1,570	758	2,328	1,718	799	2,517
2003	49	14	63	94	16	110	1,104	566	1,669	1,247	596	1,843
2004	52	12	64	37	11	48	565	296	861	654	319	973
2005	42	10	52	15	8	24	567	255	822	624	274	898
2006	42	8	50	10	7	17	1,128	205	1,333	1,180	219	1,400
2007	32	6	38	4	6	10	433	160	593	470	172	642
2008	20	4	24	5	6	11	403	130	532	428	140	568
2009이후	52	10	62	227	75	301	1,469	274	1,743	1,748	358	2,106

Ⅲ. 인천시 채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인천시 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의 문제점

□ 문제제기

- 1991년 우리 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지방재정부문에서 그 규모와 권한이 급격히 신장되었으며, 지방재정의 전반적 팽창현상이 나타나 인천시도 1990~1997년 기간중 통합재정규모가 약 3.3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사태이후 극심한 경기불황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인천시의 채무현황 즉 채무규모 및 채무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환계획안의 설정에 있어서 비현실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인천시 채무현황의 문제점

가. 채무규모의 문제점

□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종합분석에서 채무의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을 고려하여 인천시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어 지방채사업 진작단체로 지목받고 있음.

□ 그러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산하단체의 채무를 모두 고려한 채무총액 기준에서 인천시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중위권에 머물러 장기적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없음.

- 도시철도 2, 3호선이 건설될 경우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부문의 채무총액이 더욱 증대될 것임.

- 일반회계상의 대형사업인 송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일반회계 부문의 채무증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한편, 회계별 채무구조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채무비중이 1998년 말 현재 3.1%대 89.0%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비중이 매우 높아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재정부담 가중,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일반행정서비스에 대한 투자여력 저하 등의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나. 채무구조의 문제점

□ 인천시 채무의 자금별 구조상의 문제점

- 우리 나라의 지방채시장 미활성화에 따른 보편적 현상이기는 하나 인천시의 증권발행채가 모집공채가 아닌 매출공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대형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1998년 하반기 이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대책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유사이래 최저수준(1999년 1월말 현재 국고채금리 7.05%)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1999년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시기로 사료됨.
- 따라서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내 자금시장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모집공채를 통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천시 외채현황상의 문제점

- 1998년 말 현재 인천시 채무총액대비 외화표시채무는 972.4억원(8.0%)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IMF사태 이후 국내 채권시장이 전격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시의 부족재원 조달에 있어서 외화표시채무의 이용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도시철도건설에서 발행한 6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화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표시부담액이 크게 증대될 우려가 있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대책이 필요함. 특히 부산의 제2선물거래소에서 원화에 대한 통화선물이 개시됨에 따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도시철도에서 발행한 사무라이채의 경우 원금상환시점이 2006년이라는 점에서 향후 원/엔환율의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원화표시 상환부담이 최소화되는 시점(즉,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사무라이채 도입시점의 환율인 100엔당 731원 이하로 하락할 때)에서 통화선물을 이용하여 헷지거래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새로 발생되는 외화표시 채무의 경우 자금도입시점에서 통화선물에 의한 헷지거래를 통해 원화표시 원금상환에 대한 환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이율별 채무구조상의 문제점

- 1998년 말 현재 인천시 채무의 이율구조상 비교적 저금리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천시 채무중 변동금리의 채무비중이 1997년 말 8.7%에서 1998년 말 21.0%로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자금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인천시의 채무이율이 상향조정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재원조달에 있어 지방채시장이 활성화되어 모집공채발행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자금시장 및 금리전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상환재원별 채무구조상의 문제점

- 1998년 말 인천시의 채무상환재원 중 시비는 379.0억원으로 3.1%인 반면 특정재원은 1조1,755.1억원으로 96.9%를 차지하여 특정재원이 채무상환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특정재원 중 공기업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6.0%, 실수요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4%로 인천시의 채무상환계획의 수립에 있어 공기업수익금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큼.
- 이는 역설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에서 경영성과가 예상

과 다를 경우 채무상환재원계획이 한계에 이르며 시비 즉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특히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사업의 경우 요율산정이 사업의 손익구조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수익금에 대한 높은 채무상환 재원의존도는 재정상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상환기간별 채무구조상의 문제점

- 인천시 채무의 만기상환구조상 전체적으로 단기채무(상환기간 3년미만)가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상환기간이 5년인 채무가 총채무의 39.0%인 4,730.2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상환부담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임.
- 특히 상환기간 5년인 채무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수익금으로 상환재원을 설정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상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이는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 일반회계의 채무부담이 높은 대구시의 단기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천시는 채무의 상환기간의 장기화로의 구조변화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 채무상환기간의 장기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부문의 원금상환시 만기 10년 이상의 중장기채로의 차환발행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인천시 채무상환계획의 문제점

가.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상환계획의 문제점

□ 인천시 도시철도 채무상환계획상 만기도래하는 원금상환분에 대한 차환발행형태의 원금상환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채무가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인천시의 채무잔액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도시철도 1호선의 장기운영수지 전망에서 지하철 개통 3개년 이후 흑자 수준을 전망한 것은 여타 도시의 지하철사업 운영수지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운영수지가 전망과 달리 악화될 경우 인천시 일반회계상의 채무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임.

□ 따라서 서울, 부산, 대구 등 지하철사업이 상당기간 경과된 도시들을 참고사례로 해서 보다 엄밀한 사업전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현재 채무잔액 수준은 낮으나 동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편익향상을 위한 신규투자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채무잔액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함.

□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송도미디어밸리 조성에 있어 예정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채무증대가 불가피함.

□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채무상환계획을 종합해 보면,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원금부문에 대해 차환발행을 통한 상환을 전제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지방채발행의 경우 기채조건, 재원조달기법 등에 있어서 선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채무상환금액을 보면 1999~2003년까지 향후 5년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1998년 말 현재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인천시의 재무적 건전도가 단기간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기업에서 나타나기 쉬운 비효율성(X-inefficiency)을 제거하여 경영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민간부문 전문가 도입, 객관적인 경영상태 평가 등 경영성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나. 기타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채무상환계획의 문제점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금액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비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천시의 재무건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회계에 편입된 송도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이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참

여 미흡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조성단계에서 예정된 막대한 투자규모가 환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의 채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망과 달리 경영수지가 악화될 경우 일반회계로의 채무전가현상이 대구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시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의 경우 향후 재무적 안정성은 공기업특별회계부문의 적자확대에 따른 일반회계 전가부문과 송도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따른 채무증대라는 두가지 불안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임.

2. 인천시 채무관리 개선대책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자재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보아 재원(자체재원+이전재원)이 지역의 행정수요를 충당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채무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기채행위, 또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음.

□ 특히 1997년말 국내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에 들어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 차량등록감소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세수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세수결손이 더욱 악화된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된다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계속되는 세수감소와 대규모 지방채 발행누적이 지방재정에 치명타를 가할 우려가 있음.

□ 인천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규모 및 구조면에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천경제의 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와 도시철도 1호선사업의 운영수지 불안 , 송도 테크노파크조성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 인천시 재정건정성의 악화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인천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의 채무규모 및 구조, 상환계획 측면에서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함. 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수립을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인천시 채무재정의 건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함.

(1) 인천시 채무수준의 적정화 방안

가. 인천시 예산대비 채무규모 비교

□ 1998년말 현재 인천시 본청기준 총채무규모는 1조2,134.1억원으로 1998년 중 인천시 예산 2조63억원의 60.5%임.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예산대비 채무규모비중이 3.7%에 불과한 반면 특별회계 기준으로는 118.4%에 이르고 있음.

□ 일반회계 기준에 의한 채무규모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규모가 예산을 상회하고 있어 특별회계 채무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일반회계로 전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예산대비 채무규모 비율 >

(단위: 억원,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채무규모(A)	379	11,755	12,134
예산규모(B)	10,137	9,926	20,063
(A/B)	3.7	118.4	60.5

주: 1998년말 현재 인천시 본청기준

□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도 송도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채무규모가 증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적정 채무규모수준을 설정하여야 할 당위성이 대두됨.

나. 적정 채무규모수준 유지를 위한 방안

□ 인천시 재정여건 및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적정 채무규모 설정

-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지역개발사업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인상 등 주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채무규모를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지역개발계획들이 확대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방자치 초기에 재정의 방만한 운용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
- 참고로 1930년대 미국의 경우 파산한 지방단체수는 1932년 678개, 1934년 2,674개, 1935년 3,521개에 달하였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장기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입확보 능력 또는 재정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정력에 대비한 채무규모의 실태를 비교·평가하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는 먼저 장기적인 재정력을 예측한 후 이에 상응하는 적정 채무규모를 설정함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량적인 측면에서 적정채무규모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시 적정채무규모 설정에 대한 모형구축을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인천시 채무정책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도록 유도함.

□ 인천시 채무위험 수위 조기경보체제 구축

-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지출은 경제적 성격상 적정수준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힘든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누출로 인한 재정위기경향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 서구 선진국 지방정부들의 경우 재정위기에 직면하게되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① 사회·경제적 쇠퇴모형: 탈산업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주로 재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이 감소되는 반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증대하여 지출수요는 더욱 증대된데 기인

② 정치적 요인모형: 공공부문의 강성노조와 이에 따른 공공부문 임금비중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장의 정치형태에 기인

③ 관료적 팽창모델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모형: 공공부문에서는 가격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편익계산에서 거품현상이 나타나거나, 서비스 생산과 분배과정에 참여하여 집행단계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해당부서의 경상경비를 확대하는데 기인.

④ 지방재정 내부운영체계의 비효율성: 불건한 재정관리가 세입부족으로 이어지고 재정기반과 관련된 합리적인 예측을 방해한데 기인. 즉 긴축국면에서 대규모 차입재원을 동원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활동을 적절히 관리 및 통제하지 못한데 기인

-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의 요인을 종합하면, 단체장의 선심성 복지비의 과도한 지출과 공무원 임금 상승 및 후생 증대로 인한 상황적 재정위기와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위기 등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됨.

-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뉴욕시의 70년대 위기와 90년대 위기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뉴욕시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내부운영체계의 감축관리이었음. 특히 방만한 소비성 재정투자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70년대의 재정위기시기에서는 감축관리가 중요하였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위기가 나타난 90년대에는 단순한 감축관리의 차원을 넘어 재정수입을 확대시키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뉴욕시의 두가지 유형의 차별적 재정위기와 주요 대응방안 >

	1975년 재정위기	1993년 재정위기
기본성격	인기성 복지비 지출과 상황적 재정위기	경제재구조화와 구조적 재정위기
재정위기 주요원인	o 인기성 복지비 급증(1966~1971) -고등교육비 증가 -무료종합병원 유지비 증가 -시공무원 후생비 증가 o 1973년 시재정 파탄위기 봉착	o 도시경제 침체(1989~1992) -1989년 마이너스 성장 -사무실공실률 증가: 재산세 감소 -재구조화를 위한 자본투자 증대 : 80년대 공채발행 상환부담 증대 o 사회복지비용 증가
주 요 대응방안	o 연방융자와 지방세수증대 o 공무원 감축 o 시립대무료교육 폐지 o 교통요금 인상 o 공립학교/시립병원 일부 폐지	o 세수증대 o 공무원 인력감축 o 고금리지방채 차환 o 뉴욕경제개발공사 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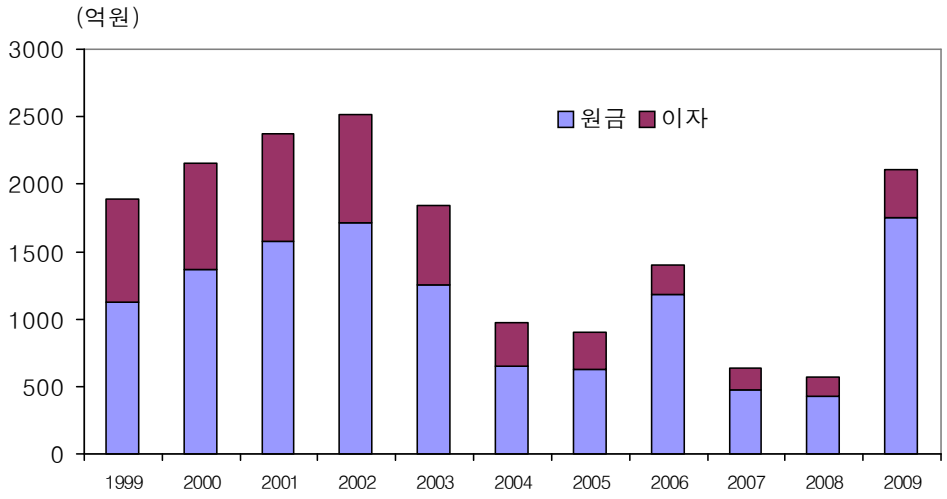
- 인천시의 경우 향후 나타날 재정위기의 요인으로는 인기성 복지비지출에 따른 상황적 재정위기보다는 지역경제의 재구조화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위기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즉,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역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자본투자 증대에 의한 채무원리금 상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음.
- 따라서 인천시는 앞서 설정된 적정채무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의 총채무규모를 비교하여 인천시 채무규모에 따른 재무위험 수위를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수기반의 확대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천시 중기 재정수요에 기초한 채무 관리전략 수립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기 재정계획상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중기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지방채 발행계획을 종합하면, 현재의 채무규모 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채무규모를 예측할 수 있음.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의한 채무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될 사업에 의한 채무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인천시 채무관리전략이 수립 가능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규모의 관리에 있어 중기적 재정수요에 기초하여 채무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인천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서 나타난 1999~2009년 중 원리금 상환예상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향후 5개년 동안 매년 2,000억원 내외에 달해 원리금상환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특히 동 채무상환계획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차환채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계획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내 경제여건변화로 차환채발행이 어려울 경우 인천시의 채무상환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천시는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먼저 중기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중기적인 채무규모를 예측한 후 인천시의 적정 채무규모 수준과 비교하여 사업별로 기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인천시 총채무 원리금상환계획 >



□ 통합적인 채무관리체제 구성

- 인천시가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채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상의 채무규모 증대와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압박은 궁극적으로 일반회계로 전가되어 대구시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전담부서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채무를 포함, 재정 전반을 폭넓게 담당하는 (가칭)재정담당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외부 재정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 방식을 개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객관적 중기경영진단에 의한 운영수지 분석 필요

- 도시철도 1호선사업의 장기운영수지 전망에 의하면 도시철도 개통 3개년 후부터 운영수지가 균형을 이루며 5개년 후부터 대규모 운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 부산 등 이미 도시철도가 개통된 광역시의 경우 운영수지 흑자가 아닌 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 도시철도사업의 장기 운영수지전망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도시철도 1호선사업의 채무상환계획상 운영수지의 흑자를 원금상환에 이용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운영수지의 적자가 확대될 경우 도시철도사업의 채무규모 확대가 불가피함.
-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엄밀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객관적인 장기운영수지를 추정함으로서 채무규모의 변화가능성을 진단하여야 할 것임.

□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의 설치

- 인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송도 테크노파크조성사업 및 도시철도,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 상의 대규모 채무의 상환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이에 대해서는 최근 인천시도 계획을 수립,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도금고에 예치하고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여야함(장기적 금리전망을 통해 안정적인 채권투자 등이 권유됨).
- 이를 통해 지방채상환 원리금의 일부를 충당하여 지방채상환에 따른 일시적인 일반회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방채를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

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채관리대장의 정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산·부채관리기법 도입

- 자산·부채관리기법(ALM: Asset/Liability Management)이란 금융기관이 경영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험 즉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금리위험, 환율위험 등에 대응하여 경제 및 금융환경에 대한 예측을 발판으로 하여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평준화하기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최적 구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법임.
- 인천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자산·부채 관리기법을 원용하여 사업소별로 자산·부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투자심사분석제도의 활성화

-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 기채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이를 시민, 전문가와 함께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2) 인천시 채무구조의 개선방안

□ 금융시장전문가에 의한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발행 활성화

- 인천시는 송도테크노파크사업 등 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막대한 재정수요가 예상됨.
-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지만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의 자체조원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보조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상환기간, 상환보증방법, 사업성격, 발행형식,

자금원, 상환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기채전문가의 육성을 통해 인천시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도시철도사업의 원금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시 10년 이상의 장기채발행을 통해 채무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와 국제금융 전문가 육성

-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업차관·공공차관 등 외채발행에 의한 외국자금 조달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부문의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
- 이와 더불어 기존의 6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채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전문가를 육성하여 외환선물시장의 이용함으로서 환위험관리를 통해 원화표시 원리금상환 부담을 최소화.

□ 인천시 채무종류별 금리감응도 분석 필요

-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금리감응도 관리임.
- 인천시의 총채무 중 변동금리의 채무비중이 1998년 말 현재 21.0%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라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상환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의 채무를 금리감응부채와 금리비감응부채로 분류하여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금리감응부채를 감소시키고 금리비감응부채를 증대시키는 한편, 이자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반대 방향의 채무구조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인천시의 자산 또한 금리감응자산과 금리비감응자산으로 분류하여 금리변동에 따라 금리감응도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3) 인천시 채무상환계획의 개선방향

□ 중장기 통합 채무상환계획의 수립

- 인천시의 채무상환계획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별로 나누어 수립되고 있으며 또한 개별 사업단위별로 채무상환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의 채무상환계획은 사업소별 채무상환계획의 집계에 그치고 있어 대형 장기채무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시 본청에 채무상환계획을 총괄하는 기능을 두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채무상환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전대응조치를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채무상환계획의 타당성에 근거한 기채우선순위 결정 필요

- 인천시의 신규사업의 시행시 기채수준 및 이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추진부서의 자의적 계획수립으로 채무상환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신규사업의 추진시 채무상환계획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천시의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전문가에 의한 외채상환계획 수립

- 인천시가 대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화표시 증권발행이나 상업차관 도입의 경우 원화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 및 국제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외화표시 채무발생시 기채시점에서 외환선물시장을 이용하여 원화표시 채무상환액을 확정시킴으로서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금리변동위험 역시 스왑거래 등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외화표시 채무의 기채시점에서 국제금융전문가에 의해 환율 및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